Vol. 124 | 2006.12.1.

CHAIRPERSON NOTE

경제 이슈
- 가계 부채 증가로 소비 부진 우려
- 弱 달러, 强 유로

경영 노트
- M&A의 6가지 함정

사회 트렌드
- 한국의 남녀평등, 115국 중 92위
- 한국의 미혼여성 70%가 결혼보다 일 선택

저널 브리프
- 세계적인 식량 위기 도래

洗心錄
- CEO가 부하직원에게 주어야할 교훈

現代經濟硏究院
HYUNDAI RESEARCH INSTITUTE

□ 가계 부채 증가로 소비 부진 우려

■ **3/4분기 가계 부채 잔액은 전기 대비 13.3조 원 증가한 558.8조 원을 기록한 가운데 가구당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3,476만 원을 기록**

- 이는 거액이 요구되는 아파트값 상승 등에 따른 가계 부문의 주택 구입용 담보 차입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
- 은행의 가계 대출 가운데 주택 구입 용도의 비중은 2005년 3/4분기 51.4%에서 지난 3/4분기 54.1%로 증가하였음
- 한편, 10월~11월 중에도 주택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었고 이에 따른 가계 부문의 주택 담보 차입도 증가하여 가계 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

■ **가계 부채의 증가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국내 경기의 회복을 지연시킬 것으로 우려됨**

□ 弱 달러, 强 유로

■ **美 달러화는 28일 유로당 1.32달러까지 상승하여 작년 4월 21일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**

- 달러화 약세의 근본 원인은 미국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데 반해 유로지역 경제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
- 또한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는 반면 미 연방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미·유럽간 금리 격차 축소 가능성도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
- 최근 중국을 비롯한 몇몇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 다변화 추진 시사도 달러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음

■ **미국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폭은 크게 감소하고 있지 않아 달러화의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화 환율의 하락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**

□ M&A의 6가지 함정*

■ (개요) 잭 웰치 부부는 M&A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'M&A의 6가지 함정'이라는 제목으로 제시함

- M&A가 기업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해진 교과서가 없어 기업들이 대응에는 서툴다고 잭 웰치 부부는 언급함

■ (내용) '6가지의 함정'에는 M&A에 대한 시도 의미와 인수기업으로서 가져야 하는 고려 요소들이 포함됨

- (① 동등한 합병에 대한 환상)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동등하다는 환상에 사로잡히면 주도권 싸움에 매여 협상 진전이 어려움
- (② 문화적 궁합의 간과) 전략적 관점에서 M&A가 성공적이라도,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가 상이하다면, 결과적으로 실패 가능성이 높음
- (③ '역(逆)인질' 경계) 지나친 인수 욕심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많은 양보를 하면, 종료 후, 피인수기업이 오히려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발생
- (④ 두려움으로 인한 지연) 합병의 두려움으로 협상 과정에서 명확하지 못한 요소를 남긴다면 향후, 직원들의 사기와 업무 지연을 유발함
- (⑤ '정복자 신드롬' 경계)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요직을 독점하는 정복자 신드롬은 피인수기업의 역량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
- (⑥ 지나친 대가의 회피) 인수가격이 지나친 입찰 경쟁으로 인해 매우 높게 정해진다면, 성장을 위한 M&A의 의미가 퇴색됨

■ (시사점) M&A가 증가하고 있는 국내 기업 환경을 고려할 때, M&A의 효과성에 기초한 협상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

- 현명한 M&A는 기업 성장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지 단순히 외형을 늘리기 위한 기업합병이 아님을 명심해야 함
- 잭 웰치 부부는 M&A 과정에서 나타나는 '6가지 함정'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, 실수를 인정하고 협상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제언함

---

* 이 글은 BusinessWeek(2006.10)에 실린 *"The Six Sins of M&A"*를 요약·재구성한 것임

□ 한국의 남녀평등, 115 국 중 92위

■ **한국의 남녀평등 수준은 세계 115국 가운데 92위임**

- 세계경제포럼(WEF)이 발표한 '남녀 격차 지수'에 따르면 한국은 캄보디아(89위), 튀니지(90위), 요르단(93위), 나이지리아(94위), 인도(98위) 등과 함께 최하위권임
- 부문별로는 고용 96위, 교육 81위, 정치참여 84위, 보건 94위이며, 중등교육과 기대 수명에서는 각각 1위를 차지했으나, 동일노동 임금평등 분야는 105위로 상당히 낮은 수준임

■ **세계에서 남녀가 가장 평등한 국가는 스웨덴임**

- 남녀평등이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국가는 지난해에 이어 스웨덴이 뽑혔으며, 노르웨이, 핀란드, 아이슬란드 등이 뒤를 이어 북유럽 국가들이 남녀평등에서 앞서고 있음
- 아시아 국가 중에는 필리핀이 보건과 교육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으며, 중국과 일본은 각각 63위, 79위임
- 반면 남녀 불평등이 가장 심한 국가는 예멘으로 나타남

□ 한국 미혼여성 70%가 결혼보다 일 선택

■ **미혼여성의 10명 중 4명은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**

- 최근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미혼여성의 58.1%만이 공감하고 있음(미혼 남성은 71.2%)
- 반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혼의 경우 82.7%가 '필요하다'고 응답해 결혼관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■ **미혼여성의 70%가 결혼보다 일을 선택함**

- 미혼 남녀의 62.7%가 일에서의 성공을 위해 결혼을 안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, 미혼여성의 경우는 69.9%나 결혼보다 일을 선택함
- 2004년 KDI 조사에서는 미혼 여성의 26.2%가 결혼보다 일을 선택, 불과 2년만에 수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

□ 세계적인 식량 위기 도래*

■ **(식량 파동 가능성 고조) 최근 곡물의 공급 감소, 수요 증가, 글로벌 자금 유입에 의해 곡물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적인 식량 파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**

- **(세계 곡물 가격 급등세)** 최근 7년 동안 6차례나 곡물의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급등함
  - **(원인)** 곡물의 작황 악화로 인한 공급 감소, 아시아 인구 및 경제 발전에 의한 수요 증가, 대체 에너지인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서 곡물 사용 증가, 글로벌 투기 자금 유입 등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함
  - 2005년 1월 대비, 2006년 10월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55%, 밀은 70%, 귀리는 54%가 상승함

■ **(향후 전망) 세계 곡물 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, 곡물 가격 급등에 의해 세계뿐 아니라 국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**

- **(식량 위기 가능성 증대)** 최근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세계식량농업기구(FAO)의 보고서를 인용해 곡물의 공급 부족으로 세계는 향후 30년 동안 심각한 식량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함

- **(국내 곡물 가격 급등)** 세계 곡물 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상승은 곡물 자급 비율이 낮은 국내에서 곡물 및 육류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임
  - 2005년 기준 우리 나라 곡물 자급 비율은 29.3%로 OECD 회원국들 중 최저 수준임
  - 또한 우리 나라 사료용 곡물은 전체 곡물 소비량의 41.3%나 차지하고 있어 곡물 가격의 상승은 육류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것임

■ **(과제) 현재 우리 나라의 높은 곡물 수입 의존도로는 식량 파동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, 향후 옥수수 등의 곡물 자급 비율 제고를 통해 세계 식량 파동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**

---

* 이 글은 『ECONOMY 21』(2006.12.05)에 실린 글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□ CEO가 부하직원에게 주어야 할 교훈

경영 컨설턴트 나카지마 다카시(中島孝志)가 『CEO가 되기 위한 50가지 리더십』에서 제시하는 리더십 지침 가운데, 특히 부하직원에게 가르쳐 주고 훈련시켜야 할 교훈이라는 관점에서 일곱 가지를 추리면 다음과 같다.

첫째, 일하는 목적을 끊임없이 말해 준다. 부하직원에게 올바른 목표를 주지시키고,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다.

둘째, 신뢰는 리더의 생명이다. "자내 업무 처리가 빠르군"이라는 말보다는 "자네라면 믿을 수 있지"라는 말이 비즈니스 세계에선 더 중요하다.

셋째, 리더가 되기 위해선 '자신의 전문적 능력'과 '팀 전체의 능력',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.

넷째, 공(公)과 사(私)를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준다. 직원들은 업무에 관한 사소한 비리에서 시작하여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.

다섯째, 기업 활동의 가치는 이익 창출이다. 마쓰시타 고노스께의 말대로 '적자는 죄악'이다. 이익 창출이라는 가치관을 회사 내에 견고하게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.

여섯째,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업무를 맡긴다. 부하에게 '할 수 있는 능력 플러스 알파'를 요구한다. 부하 직원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리더는 친절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리더가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상사이다.

일곱째, 팀원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낸다. 부하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는 창의적인 연구를 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. 부하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정받을 때 가장 즐거워한다. "부하들에게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마라. 그저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면 그들은 나름대로의 독창성으로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."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롬멜 군단을 격파한 미국의 패튼 장군의 말이다.

>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
> 그 아이디어가 성공할 때까지는 괴짜다.
> - 마크 트웨인(1835~1910): 미국의 소설가